

코로나19 뚫고 ... 광주 도심 봄꽃 '활짝'



봄 기운이 완연해진 23일, 광주 도심 곳곳에 봄 꽃들이 만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왼쪽부터 홍매화, 마가렛, 수양버들, 팬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尹, 호남 빼고 국민통합 나서나

인수위원 지역 출신 아예 없고
전문·실무위원 중 호남 극소수
“다시 암흑의 시간” 위기감
호남출신 공무원 불이익 우려도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초반 행보와 관련, 호남 소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원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아예 없는 것은 물론 전문·실무위원도 극소수에 불과, 인수위와 지역과의 네트워크가 크게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의 비전, 정책, 프로젝트, 지역 공약 등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역대 보수정권의 불균형 정책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호남에 다시 ‘시련의 계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윤 당선인은 국민의 힘 소속 영남지역 단체장,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계속 만나는 등 특정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부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8명을 만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지난 21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 16개 공약사업과 관련 조속한 국비 반영과 법 개정, 예비타당성 면제 사항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과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치우친 윤 당선인의 행보는 불필요한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인수위 내부 정보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면서 영남권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응 역시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상황이어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등과 관련, 인수위와의 연결 고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 현안을 쟁길 수 있는 정치적 여지가 없는 셈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찾아가서 인사하고 자료 건네고 부탁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깊은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중앙부처에 남아있는 호남 출신 공직자들도 차기 정부에서도 역대 보수정권에서 반복됐던 차별 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인수위 구성에 앞서 준비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파견한 직원들 가운데 호남 출신 5급 이하 하위직 공직자들이 갑자기 이달 25일자로 복귀한 것을 두고 갖가지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 인사는 “인수위 내 일부 인사가 호남 출신을 고의적으로 배제한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며 “따치 이명박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6명이 인수위에서 복귀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쳤고, 출신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역 내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차별 없는 정부를 강조한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에서 취약한 호남지역에 관심을 갖고 보다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광주를 찾아 대선 공약 실천을 약속한 것처럼 윤 당선인도 호남 배려의 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는 “능력과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기용하다 보면 인구밀도가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호남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균형발전은 세종시 완성이 아니라 불균형지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국가의 지원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확진자 10명 중 3명은 10대	▶2면
치고 막고 달리고...즐거움 KIA 김도영	▶18면
신 팔도명물 - 슈퍼푸드 해남 고구마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알립니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0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출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모집부문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전형일정	
전형방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마감	4월 4일(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4월 5일(화) 개별통보
심층면접	4월 7일(목)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4월 11일(월)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양식 광주일보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1부	A4 1장 이내
외국어 성적증명서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문 대통령,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IMF 국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친 경제·금융전문가로, 국내·국제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다”며 “주변 신망도 두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재정 및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와 감각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물가와 금융시

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총재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장 윤 당선인 측은 한국은행 총재 후보 지명과 관련,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